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이동 (9월 21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6)



103위 한국순교성인화

1976년 9월 당시 혜화동본당 박희봉 주임신부는 문학진(토마스) 교수에게 '103위 순교복자성화'를 의뢰하였다. 작가는 10개월에 걸쳐 전례, 역사, 복식 등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과 한국적 주체성을 살려 순교자 한 분 한 분 특색 있게 그렸다. 이 성화는 1977년 7월 15일, 김수환 추기경의 축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후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한국순교복자' 모두 성인품에 오르게 되었고, 이 작품이 여의도 103위 시성식장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그림이 햇빛에 노출되어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성화의 보수과정에서 순교복자들의 배치를 '79위 복자성화도'(1926년)를 참조하였으나, 대부이신 박성갑 교수가 "한국순교복자성화에서 외국인이 중앙에 있으면 주체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제안하여 중앙의 외국인 주교 자리에 김대건 신부를 모시게 되었다. 당시 이것은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한국천주교회가 자생적인 것처럼 성 미술에 있어서도 주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하나의 결실이었다.

작가 문학진 토마스 | 1977년, 유화, 285x330cm,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 모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주님, 저희 공동체와 함께하시어 친교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삶의 편안함을 찾으며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루카 9,23-24 참조)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루카 9,26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충실함의 길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끈기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 손해 보는 길 같고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풍요롭고 복된 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릅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9장 23-24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하느님 안에서 공존하기】 교황님 9월 기도지향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을 읽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논의하고 하나씩 실천하기 (행사 시 일화용품 쓰지 않기, 쓰레기 줍기 등)



내 삶 속에서

- ① 일상 생활 속에서 도움 받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 묵상해보기
② 하루 한 번,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어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중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식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